주제회의
-이주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베트남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홍진아
[한국, 광주북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역사]

초록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이 되었다. 매년 5월에 뉴스를 통해서 전해주는 5.18민주화운동은 아프고 슬픈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광주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지만 5월이 되면 마음에 비가 내리고,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이 든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얼마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어서 역사를 알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들으며 먼저 떠오르는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들이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일반 시민들을 무조건 죽이기도 했던 과거를 기억한다. 베트남 시민들 가운데 아직도 억울함과 고통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베트남 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청한다.

5.18민주화운동은 베트남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해 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을 맞고 몸도 마음이 다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0년 5월 당시 내가 광주에 있다면 나도 광주 시민으로서 데모하고 '독재주의 물러서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쳤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싸우며 광주를 지키기 위한 시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민공동체는 광주 시민들 스스로 만들었다. 여성들과 시민들이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광주지역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 수많은 용감한 희생자와 피를 흘린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살게 된지 14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광주 땅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나는 광주 시민이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민주화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와 광주 시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려주려면 5.18민주화운동 이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워서 같은 고향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영상이나 영화를 같이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베트남 이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나눈 후 5·18묘지를 방문할 것이다. 광주 역사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고, 후손들이 알게 되면 큰 힘으로 광주, 즉 빛고을이 되는 지역이이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베트남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홍진아(베트남 공동체)

1980년 5월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벌써 40주년이 되었다. 매년 5월이 되면 뉴스가 나오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하늘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마음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광주에서 14년 동안 살고 있는데 5월이 되면 마음에 비가 내리고 눈물을 흘리는 슬픈 느낌이 생긴다.

2006년에 한국에 처음 왔다. 결혼을 한 후에 오게 되었지만 한국 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다. 광주도 어떤 도시인지 몰랐다. 베트남에 있는 아는 언니가 한국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업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결혼하고 광주에서 살게 되었지만 광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다. 광주에 살고 있는 남편이 광주에 온 내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해 주었다. 그렇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도 잘 모르는 상태여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해 준 말 가운데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쏘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광주 시민들은 총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저항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가끔씩 망월동에 있는 국립5·18묘지를 방문했다. 그곳에 전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전쟁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5·18민주화운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세히 몰랐다. 그리고 얼마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어서 역사를 알게 되었다.

5·18 당시 광주 상황을 배우며 베트남에서 있었던 전쟁이 떠올랐다. 베트남 전쟁 말이다. 1965년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계속된 베트남 전쟁에 한국은 한국 군대를 파병했다. 전쟁 당시에 한국 군인들은 엄청 무섭고 사나웠다고 한다.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죽고 일반 시민들도 무조건 죽이기도 해서 베트남 시민들이 많이 죽었다. 베트남 시민들은 많이 억울하고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몸에 새겨진 상혼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당시 어린아이였던 베트남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 씨가 2019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베트남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하며 베트남에서 한국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내가 태어난 곳은 베트남 남쪽 호치민에서 한 시간 걸리는 빈 즈엉(Binh Duong) 성이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베트남 역사를 잘 알지 못했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에 관해서 자세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닐 때 베트남 역사를 공부했지만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 베트남은 옛날부터 수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았다. 그 가운데 한국 군대가 왔던 베트남 전쟁이 있다.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거의 모른다. 아마도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나라이든 자기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플 것이다. 또한 베트남 남북이 통일 된지 오래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 중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다. 베트남과 달리 한국에 살면서 선거를 할 때마다 놀란다. 베트남에서는 선거 때 가족끼리 의논해서 가족대표가 대신해서 선거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투표를 한다. 베트남에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와서 민주화 된 나라가 가진 좋은 점을 많이 배운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함께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평화롭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총을 맞고 몸도 마음이 다치고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0년 5월 당시 내가 광주에 있다면 나도 광주 시민으로서 데모하고 '독재주의 물러서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외쳤을 것이다.

2020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과 인권 주제회의 발제를 맡게 된 덕분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었다. 그 당시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알게 되었다. 광주 시민들이 많은 희생과 아픈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택시운전사'는 당시 광주 상황에 대해서 가슴 속이 너무 쓰리고 깊은 아픔을 남겨준다. 계엄군과 싸우며 광주를 지키기 위한 시민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이 시민공동체는 광주 시민들 스스로 만들었다. 여성들과 시민들이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광주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항쟁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광주지역은 이제 평화를 찾았다. 수많은 용감한 희생자와 피를 흘린 덕분에 우리는 이만큼 민주주의를 갖게 되었다.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살게 된지 14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광주 땅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나는 광주 시민이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에 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래야 우리 광주가 지닌 빛을 알리고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민주화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디 가든 나는 광주 시민으로서 어깨가 으쓱거린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잘 모르는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 살고 있는 나를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한다. 좋은 땅, 좋은 세상 특히 금남로(충장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거리 등 젊은 시대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저녁이 되면 가게들이 붐비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이제 금남로에서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일어난 일과 그 사건이 지닌 깊은 의미를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이 달라진다. 내가 지금 사는 동네도 전남대학교와 가깝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를 더 깊이 하고 난 뒤에는 전남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마음도 달라진다. 한국에서 대학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지만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많이 다치고 죽은 줄 몰랐다. 대학생들은 즐겁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온 내가 지금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것이 광주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

베트남 다른 이주민에게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와 광주 시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려주려면 5.18민주화운동 이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군인이 정권을 차지하고 독재했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베트남 이주민들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광주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고 마음을 가질 것이다. 지금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이며,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이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그래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워서 같은 고향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

한 영상이나 영화를 같이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베트남 이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나눈 후 5·18묘지를 방문할 것이다. 광주 역사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지고, 후손들이 알게 되면 큰 힘으로 광주, 즉 빛고을이 되는 지역이이 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필리핀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뉴엘(필리핀 공동체)

초록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 사람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발제하게 되었다. 필리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발제를 맡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0일 동안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다. 22년 전에 광주에 왔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에 한국은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세상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군사독재정권과 쿠데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이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을까? 지금 청년들은 잘 자란 것일까?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사회적 숙제는 여전히 많다. 정치도 좋아져야 하고, 경제도 좋아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쏙 빠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과 함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잘 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나?”
“나는 좋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구성원인가?”

광주에서 그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여 얻게 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얻게 된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녀들이 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변화는 언제나 남이 아닌 ‘나’로부터 일어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공부하고, 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했다.

첫째,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심하면 당하게 된다.
둘째, 방치된 걸 도려내려면 희생이 크다. 썩기 전에 살펴보자.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넷째, 나부터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필리핀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뉴엘(필리핀 공동체)

저는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뉴엘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 제너럴 센토스 코로나달시가 고향입니다. 저는 1998년에 한국에 왔고, 22년간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98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아랍에미리트로 갔습니다. 그 후 홍콩으로

가서 일했고, 어떻게 광주 사람과 결혼하여 광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인상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주 사람들도 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필리핀에 살 때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필리핀 사람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적인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발제를 맡으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0일동안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2년 전에 광주에 왔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이야기 해주었고, 해마다 5월이 오면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자주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들과 5·18민주묘지도 방문했었고, 사진과 영상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17년에 영화 '택시운전사'를 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이전에 한국은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세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우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군사독재정권과 쿠데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 번째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대통령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혁명을 통해 집권했고,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간 5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는 법치가 작동하지 않는 1인 독재체제였습니다. 사회는 소수권력층 중심으로 돌아갔고 혈연, 학연 위에서 사회가 성장했습니다. 부패가 만연해서 죄를 지어도 돈과 권력의 힘으로 쉽게 풀려났습니다.

국민들에게 자유가 없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제 고향 필리핀이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는 절대로 늦게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을 욕하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대통령이 된 마르코스는 1965년부터 21년간 장기 집권하였고, 1972년 필리핀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니 제 아버지께서 계엄령이 선포될 때 자식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때도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가두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 1986년 필리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마르코스는 대통령에서 물러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은 후에 더 이상 쿠데타가 아니라, 민주적 방법인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북한 남침설'을 흘리면서 국가 안정화를 이유로 군대를 출동시켰고, 군인들이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그 동안 반군사독재를 외쳤던 사람들을 가두어버립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에 군인을 보냈는지 이해를 할 수 없

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18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 그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지금도 슬퍼합니다.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하자는 운동입니다. 한국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60년까지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간 대통령을 했고, 전두환 씨도 7년간 대통령을 합니다. 이후 군부 출신이 계속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일어나 저항하고 그것을 6·10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항쟁을 하고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나 지금 젊은이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취업난과 경제난 속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되었지만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반 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청년들은 잘 자란 것일까요?

2014년 4월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치도 좋아져야 하고, 경제도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쏙 빠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과 함께 이런 걸 한 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내 아이에게 잘 하고 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있나?”
“나는 좋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구성원인가?”

광주에 사는 필리핀 이주민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정권 아래에서도 살아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광주에 사는 필리핀 이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대통령에 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약과 전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우리 고향에서는 한 마을에 코로나 감염이 생기면 아예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가 너무 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여 얻게 된 것이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얻게 된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녀들이 컸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는 언제나 남이 아닌 ‘나’로부터 일어납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공부하고, 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방치된 걸 도려내려면 희생이 큽니다. 썩기 전에 살펴봅시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넷째, 나부터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스리랑카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파티키리 코랄라라레 나야나(스리랑카,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초록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다.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배울 기회가 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시민과 학생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 조국 스리랑카에도 비슷한 과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총칼로 군화발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배웠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지켰고, 스스로 시민공동체를 만들었고, 당시에 단 한 건 범죄도 없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동이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너무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광주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준 소중한 가치를 주변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나라 스리랑카는 아직 5.18민주화운동 때처럼 성숙한 시민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살면서 배우고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통해서 민주화와 시민의식을 우리나라 스리랑카에 알리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려고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 스리랑카 이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기

파티키리 코랄라라레 나야나(스리랑카,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 나야나입니다. 1997년에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암에 걸려서 노동하지 못하고 치료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유하는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스리랑카 친구 소개로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 가면 무료 쉼터가 있어서 저처럼 치료받고 쉬어야 하는 사람들도 머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무조건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철우 목사님과 임세미 쉼터팀장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에 노동자로 와 있는 다른 이주민과 함께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매년 한국역사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역사유적지들을 다녔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로 언젠가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무덤들을 둘러보았고 당시에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였던 이철우 목사님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자세히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시민과 학생에 대해서 배우며 우리 조국 스리랑카에도 비슷한 과거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에 대한 이 기억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이주민 전체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개인 관점에서 스리랑카 상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르크시스트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인 인민해방전선(JVP; Janatha Vimukthi Peramuna)과 정부군의 싸움으로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1971년부터 수시로 수많은 어린이와 고등학생 대학생이 죽었습니다. 1971년 3월 인민해방전선(JVP)이 일으킨 무장투쟁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7년 2월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인민해방전선(JVP)은 1960년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마오이스트(Maoist) 조직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 즈음 싱할라인들의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파시즘적 정당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988년 6월 20일, 스리랑카 정부는 인민해방전선(JVP)의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1989년 좌파 민족주의 정당(JVP)의 붕괴로 폭동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장면도 있습니다. 아침에 거리에 나가면 태워 죽이고 참수당한 시신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습니다. 정부군이 죽인 것입니다. 그 후에 수백 명의 시신들을 찾아내었지만 아직도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40년이 지난 5·18민주화운동과 비슷했습니다. 행방불명이 되어서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들은 수리야칸다(Suriyakanda) 지역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3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1996년이 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의원이었던 마힌다 라자팍샤(Mahinda Rajapaksha)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수리야칸다(Suriyakanda)에서 살해 된 어린이들 뼈 조각을 들고 제네바에 있는 유엔에 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규모 정부군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카투나야카 반다나이케(Katunayaka bandanaike) 공항에서도 제제를 가했습니다. 1987년부터 1989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쓰디 쓴 과거의 슬픈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투쟁을 시작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살해되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엠블리피티야(Embllipitiya) 고등학생들은 무관한데도 인민해방전선(JVP)과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수리야칸다(Suriyakanda)지역에서 심한 고문과 죽임당한 사건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스리랑카 상황은 또 다른 갈등이 존재합니다. 토착민족인 싱할라인과 영국 식민지배 당시 이주한 타밀인 간의 지속적인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싱할라인과 달리 타밀인들은 주로 힌두교를 믿어 종교적 차이가 있으며, 타밀인들은 주로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타밀인들은 1976년 북부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독립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약 30여년에 걸쳐 타밀 호랑이 조직과 스리랑카 정부 사이의 스리랑카 내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군인들과 일반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국가폭력에 저항하며 일으킨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총칼로 군화발로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지켰고, 스스로 시민공동체를 만들었고, 당시에 단 한 건 범죄도 없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투쟁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너무 슬픈 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20년 동안 광주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이 보여준 소중한 가치를 주변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이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스리랑카는 아직 5.18민주화운동 때처럼 성숙한 시민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살면서 배우고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통해서 민주화와 시민의식을 우리나라 스리랑카에 알리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는 광주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당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기억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가야 할 5·18민주화운동 – 우즈벡 이주민 시각으로 바라보기

아브드코디로바 맙투나혼(우즈벡 공동체)

초록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이주민)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우즈벡 이주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 세계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고민을 하며 전적으로 제 개인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은 평화롭고 평등한 미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며 목숨을 바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10일간 광주 시민들이 길에 나와 시위를 하고 독재자가 명령한 군인들에 대응하는 동안 광주에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

다. 광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한 끼라도 챙겨먹을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었으며 가두방송을 하여 이 사건을 널리 알렸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주 공동체만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 목숨보다 민주화를 외친 분들이 역사에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민주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즈벡 역사를 떠올리게 했다. 1983년 민주화를 외치다, 젊은 나이 44살에 사형을 당한 압둘라 커디리의 이야기이다. 압둘라 커디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이루고 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뇌 없는 인간'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닮았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운 후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고문을 당했는데 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사법당국에 의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을까? 다음은 사람이 총에 맞아 다치고 생명을 잃었는데 시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하나요? 군인이 총을 쏠 때 지휘관 명령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즈베크 사람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끝으로 5.18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 회복해 나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알려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 우즈벡 공동체 멤버들은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겠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겠다.
우리는 바른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전달되도록 연대하겠다.

함께 가야 할 5·18민주화운동 – 우즈벡 이주민 시각으로 바라보기

아브드코디로바 맙투나혼(우즈벡 공동체)

2011년 말경 한국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던 시절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던 중 '써니'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 돌아오던 길에 지하철 대기실에 전시한 사진과 글,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쉬운 한국어로 하나씩 설명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남편이 해 준 설명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총에 맞아 죽고, 잡혀서 고문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 시위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텔레비전(TV), 사회연결망(SNS), 가족, 지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들었고, 영화를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 대

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이주민)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제 글을 작성하기 전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들과 만나서 함께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번 연기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얼굴 보고 토론하고, 함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우즈벡 공동체 소속 이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즈벡 이주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 세계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등 고민을 하며 전적으로 제 개인 관점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5·18민주화운동은 평화롭고 평등한 미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며 목숨을 바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하였으나 정치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이유로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광주는 공동체를 중요시했고, 더 이상 독재를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광주 공동체는 민주화를 이루려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목숨을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화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확신했기에 두려웠지만 앞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10일간 광주 시민들이 길에 나와 시위를 하고 독재자가 명령한 군인들에 대응하는 동안 광주에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한 끼라도 챙겨먹을 수 있도록 주먹밥을 만들어 나누었으며 가두방송을 하여 이 사건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주 공동체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지지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 목숨보다 민주화를 외친 분들이 역사에 드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민주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즈벡 역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983년 민주화를 외치다, 젊은 나이 44살에 사형을 당한 압둘라 커디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압둘라 커디리는 우즈벡 소설문학의 창시자이고, 시인, 소설가, 문학번역가이다. 그는 문학을 통해 민주화를 외치고, 소비에트식 정치의 잘못된 점을 용감하게 밝혀주고,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비에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충성을 해야 한다며, 현 상태가 지속되면 ‘뇌가 없는 인간’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압둘라의 이러한 반(反)소비에트 저항은 오래 되지 못했고, 9개월 감옥 생활을 하여 온갖 고문을 당하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후 압둘라 커디리의 모든 문학작품들은 반 소비에트 정신으로 쓰여 졌다며 불을 태우거나 독서를 금지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부의 잘못을 밝히고, 더 이상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국민 의견이 존중되는 국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압둘라 커디리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이루고 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어, ‘뇌 없는 인간’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닮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운 후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고문을 당했는데 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사법당국에 의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전두환 씨는 골프를 치고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편히 살고 있을까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재판 후 구속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수많은 학생들, 일반 시민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석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한 사람들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특별사면으로 풀려 나올 수 없습니다. 한국 특별사면 제도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석방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전 국민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람이 총에 맞아 다치고 생명을 잃었는데 시민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을 밝혀내지 못하는지요? 군인이 총을 쏠 때 지휘관 명령 없이도 가능 하다는 것이 우즈베크 사람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5.18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다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견디고 회복해 나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즈벡 속담 중 '역사가 위대한 나라는 미래도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우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소그룹 모임이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다양한 방법들로 서로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우즈벡 공동체 멤버들은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른 역사가 전 세계에 널리 전달되도록 연대하겠습니다.